장려상

내 사랑하는 일기장에게: 바이올린 솔리스트가 된 날

부송아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날씨: 해님이 찐하게 나를 응원해 줌.

오늘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벌써 밤이 되어 버렸어.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니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 달콤했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져.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에 벅찬 마음을 안고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오늘 오케스트라 솔로 오디션이 있는 날이었던 거 너도 알지? 어젯밤에 잘 때부터 내 뱃속에는 나비 천 마리쯤이 들어 있는 것 같았어.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어찌나 배가 꾸물거리는지 나비들이 계속 있는 느낌이었어. 어쨌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잽싸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오디션 곡을 연주했어. 옷을 입으면서도, 신발을 신으면서도, 차를 타러 가면서도 말이야.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에 20분이나 일찍 가서 이번엔 진짜로 연습했어. 가슴이 너무 쿵쾅거려서 연습에 집중이 잘 안 돼서 너무 초조했

어. 5년 만에 하는 예술제에 솔로로 나서는 거라서 꼭 뽑히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어. 그래서 콩콩 뛰는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어.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고 선생님들도 오시고 두근두근 떨리는 제비뽑기의 시간이 돌아왔어. 오디션 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였는데 나는 5번을 뽑았어. 꺄악! 내가 왜 소리 지른지 넌 알지? 이건 행운의 숫자임이 분명했거든! 너도 알지? 우리 언니가 전교 회장 선거 나갔을 때 기호 5번이었던 거. 그래서 우리 가족은 5번을 좋아해. 너도 알다시피, 오디션 곡이 첼로를 위한 곡이어서 바이올린은 아마 거의 안 뽑을지도 모르는데다가, 늘 그랬던 것처럼 아마 5학년이나 6학년 언니 오빠들 중에서 뽑을 거라서 가능성은 매우 낮았어. 그래도 꼭 뽑히고 싶은 걸 어떡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연습을 미친 듯이 했던 거고. 그런데 번호가 5번이 나오니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마구 솟는 거야. 그냥 느낌이 좋았어.

드디어 내 순서가 돼서, 선생님들께 내 실력을 '짠!' 보여 드릴 순간이 왔어. 그런데 너무 잘하려다가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박자를 약간 실수했고, 음 이탈도 한 번 했지 뭐야.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모른 척 그냥 넘어갔어. 조금 실수가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연주한 것 같았어. 근데 말이야,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 솔로 곡 진짜 얄미울 정도로 어려운 곡이야. 우리 학교 오케스트라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곡만 하는 건지,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레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성동초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곡만 하냐고 말이야. 근데 말이야, 난 어려운 곡이어서 더 좋기도 했어.

쉬운 곡은 왠지 재미없거든. 어려운 곡을 막 끙끙거리며 해야 뿌듯한 맛이 있는 것 같아. 넌 안 그래?

지원자들의 오디션이 모두 끝나고 오디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길었는지 몰라. 잊어버리려고 책에 코를 파묻고 있었는데, 책 내용은 눈에 안 들어오고 내 심장 소리만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 있지. 하하.

"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송아! 축하합니다!"

심장이 쿵! 들었지, 내 이름? 나 뽑혔어! 그것도 1등으로 불렸어! 6학년 언니 2명, 5학년 오빠 1명, 그리고 나. 이렇게 총 4명이 뽑혔어. 믿어지니? 솔직히 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온종일 틈틈이 내 볼을 꼬집었다니까! 그런데 꿈은 아닌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됐어. 엄마랑 아빠가 나를 보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하실 때, 그게 무슨 느낌일까 했는데 나에게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 아직 이루어 나가야 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오늘 그중 첫 번째 작은 성취를 이뤄 낸 거야.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 마음을 혹시 아니? 엄마는 내가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이뤄 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엄청 대단한 거래! 너도 내가 자랑스럽니?

'성취'라는 단어가 나는 참 좋아.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해. 그래서 나의 작은 성취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주만큼 큰 성취가 되는 날까지 내 노력을 퍼부을 거야. '성취'라는 것을 이루어 내려면 딱 한 가지만 필요해. 뭘까? 한번 맞혀 봐! 정답은 바로, '끊임없는 연습, 노력'이야. 내가 피아노 반주자가 된 것도, 회장이 된 것도, 올백을 3번 맞은

것도, 바이올린 솔로가 된 것도 모두 다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취들이야. 난 절대 머리가 좋거나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오히려 반대라서 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

아, 정말정말 행복해. 솔직히 방학 동안 오디션 연습을 하는 게 힘들어서 꾀가 나는 날도 많았는데, 오늘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

겁쟁이에 소심하고 자신감 부족한 나였는데 나는 이제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뭐든지 도전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근데 오늘 내가 너무 말도 많고 내 자랑만 많이 했지? 미안. 다음엔 네 얘기 많이 들어 줄게. 오늘 내 얘기 들어 줘서 정말 고마워.

아기별들이 졸린가 봐. 나도 이제 그만 자야겠어.

행복한 꿈 꿔.